

오피니언

김준의 갯살이



지난해 아내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을 들렀다. 식품점 입구에서 판매직원이 준 김을 받아 입에 넣었다. 고소하고 향긋한 바다 내음이 입 안 뽀물었다. 갯살이라는 직원의 말에 만원짜리 한 장을 주고 두 톳을 샀다. 저녁에 살짝 구워 가위로 자를 것도 없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 밥상에 올렸다. 식구가 많아 두어 차례 손이 오가자 금방 동이 났다. 몇 장을 더 굽다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설 명절을 며칠 앞둔 겨울이었다. 날씨가 춥고, 폭설이 잦아 김 생산량이 톡 떨어졌던 해였다. 자연스레 김값은 폭등했다. 올해와 같은 날씨였다.

그때, 김을 많이 생산하는 신안의 작은 섬마을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차 안에서 어렸을 때 김에 얽힌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졌다. K씨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는 김이 흔했어. 김 한 장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밥을 싸서 먹었어."

듣고 있던 S씨가 말했다. "우리 집은 흔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밥상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여섯 조각으로 나누어서 싸 먹었지요." 듣고 있던 내가 말했다. "우리 집은 정

월에 잠깐 구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 숟가락 위에 올려서 먹었어요."

세 사람 모두 김을 먹었지만 방법은 달랐다. 당당하게 네 조각의 김 위에 밥을 싸서 먹었다. K씨는 목포가 고향이다. 밥을 김으로 돌돌 말아먹은 S씨는 광산 송정리가 고향이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그 위에 김 조각을 올려 먹은 나는 지리산 산골마을인 곡성이 고향이다. 바다와 갯벌의 거리에 비례해서 김을 먹은 횡수와 크기가 비례했다.

그러나 속내를 알고 보면 거리만 문제가 아니었다. 집안의 경제사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고 K씨가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다. 서남해 수산물의 집산지이자, 물목이 풍성했던 목포에서 자란 탓에 겨울철이면 밥상에서 김이 떨어지지 않았다.

송정리 토박이 S씨는 땅도 많고 폐사는 편이었다. 역시 어렵잖게 김을 먹고 자랐다.

우리 집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다. 쌀과 보리가 부족해 무를 썰어 밥과 함께 삶아 먹었다. 그러나 김을 사

할머니와 김

먹었던 기억은 거의 없다. 설 명절, 아버지 친목계에서 세찬으로 들어 온 김 한 톳을 어머니는 자신만 아는 비밀공간에 넣어두고 아껴두며 내 놓으셨다.

우리 집에서 S씨처럼 밥을 김으로 싸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다. 할머니에게는 김이 석 장, 아버지는 두 장, 그리고 나와 동생들에게는 김이 한 장씩 주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김 한 장을 다시 여덟 조각으로 나누어서 손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장남이었던 내게는 늘 몇 장이 더 주어졌다. 우리 집의 '김 분배원리'였다. 할머니는 그게 평등하다고 믿었다. 장남은 고생을 하고, '큰 놈'이니가 당연히 더 먹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과 함께 명절은 세찬으로 특별했다. 명태를 껌으로 사다가 시멘트 바닥에 내리쳐서 한 마리씩 뜯어내 나누었다. 당시 동해의 고성 일대에서 명태가 곧잘 잡혔다. 지금은 자원증식을 위해 '살아 있는 명태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김은 열장씩 곱게 접어 열 개를 한 묶음으로 묶었다. 한 톳이었다. 명태도 그렇지만 김은 더욱 귀해 선물로 들어오면 잘 보아 밥과 함께 삶아 먹었다. 그러나 김을 사

한두 묶음씩 이웃집이나 서운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두껍지 않고 검은 색깔에 반질반질한 김이 고급이었다. 당시 김값이 이번에 백화점에서 샀던 김값과 같았다. 그 시절 김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알 수 있다. 오죽했으면 안도에서 교사 발령을 받아 첫 봉급을 받아보고는 사표를 내고, 김양식을 했다는 분도 만났다.

지금은 파래나 매생이 등 잡채가 섞인 김을 더 찾는다. 또 소비자들은 유기농처럼 약을 처리하지 않는 뚝에 좋은 김을 원한다. 장흥 무산김이 딱 그런 김이다. 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주식 김양식처럼 햇볕에 노출을 시키며 김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사온 김도 파래김이었다. 구워준 김을 몇 번 먹더니, 아이들이 조미김을 달라고 졸랐다. 나머지 김은 아내와 내가 다 먹었다. 큼지막하게 네 조각으로 나누어 김에 밥을 올려 김장김치를 넣고, 장을 살짝 찍어 먹었다. 아이들이 알까, 그 시절 이렇게 김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던 것은.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시설

순천정원박람회 D-100, 준비 빈틈 없어야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열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10일로 100일을 남기고 있다. 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 공정률이 90%에 달한 가운데 10일 정원박람회 주제관 준공식을 가진데 이어 내달 여행연습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 20일부터 6개월간 순천시 품덕동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관련 예산 2455억 원도 확보된 상태다. 농촌경제연구원 박람회 경제효과에 대해 생산유발 1조3000억 원, 부가가치 6700억 원과 일자리 창출 1만 1000개 등으로 전망하고 이후 남해안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성공 개최와 사후 활용 방안이다. 그레아만 앞서 전망한 경제유발과 지역발전도 가능하다. 전남도가 의견을 물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최 전략과 지역발전 연계방안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정원 관련 산업 및 문화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강화가 필요하다. 숙박·교통·관광 등의 시설 및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전문 조직을 통한 운영관리 및 지원과 함께 생태정원문화산단과 테마정원을 조성하는 것 역시 무뎠할 나위가 없다. 사후 활용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순천정원박람회 성공의 관건은 아직도 사후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개최 당시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여수엑스포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은 기간 보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그레아만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주 남구청, 미술품 구입 내역 왜 숨기나

오는 3월 리모델링 후 문을 여는 광주 남구청 신청사가 지역 작가 69명의 작품으로 장식된다고 한다. 전체 작품 구입가만 5억여 원에 달하는데, 열악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술계에 큰 화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남구청은 정작 작품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술시장과 소신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나서서 논리와 설득뿐만 아니라 통찰력과 도전정신으로 뚫힌 과단성적 지도력을 있는 몇 명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무등산 국립공원 상징물 설치 논란을 계기로 후손에 자랑스럽게 남겨질 자연과 미래의 공존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의견을 무시하고 미려를 위해 무엇을 다들 짓는지, 무엇이 바람이 될 것인지, 성숙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선진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민해야 할 때다.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미술품 구입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술품품 설치계획 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4차례의 미술품품 심의 위원회 결과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남구청은 선정 작가 및 작품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청사 내에 걸릴 작품을 구입하면서 선정 작가 및 작품, 가격 등을 알리지 않아 의혹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구청은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을 것이 우려돼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또 미술품품 선정위원회 위원인 이정훈 호남대 교수가 "관공서에 들어가는 미술품의 작가와 작품, 단가 등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無等鼓

세계 최고의 인기 축구클럽인 스페인 'FC바르셀로나' 구단 박물관 2층 입구에는 '바르사의 주인은 조합원'이란 글귀가 쓰여있다. 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되는 협동조합이라 의미다.

누구나 150유로(약 21만원)의 등록비를 내면 2년간 '소시오'로 불리는 조합원이 되고, 가입 경력이 1년이 넘은 18세 이상의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해 회장을 직접 뽑는 등 구단의 중요 결정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세계 최대 통신사로 지구촌 8500여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둔 미국의 AP통신도 협동조합이다. 1948년 데이비드 헤일이란 기자의 제안으로 뉴욕의 6개 신문사가 모여 결성했다. 입학하는 선박으로부터 유럽의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만든 '항구뉴스협회(Harbor News Association)'가 모태다.

선키스트는 1893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오렌지 재배농가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거래소'를 만들어 직접 판매·유통에 나선 것이 시초다. 미국은 1869년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되자 화물 수송과 유통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1869년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되자 화물 수송과 유통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서부에서만 한정됐던 오렌지 소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오렌지 시장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비를 내린 2년간 '소시오'로 불리는 조합원이 되고, 가입 경력이 1년이 넘은 18세 이상의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해 회장을 직접 뽑는 등 구단의 중요 결정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세계 최대 통신사로 지구촌 8500여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둔 미국의 AP통신도 협동조합이다. 1948년 데이비드 헤일이란 기자의 제안으로 뉴욕의 6개 신문사가 모여 결성했다. 입학하는 선박으로부터 유럽의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만든 '항구뉴스협회(Harbor News Association)'가 모태다.

선키스트는 1893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오렌지 재배농가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거래소'를 만들어 직접 판매·유통에 나선 것이 시초다. 미국은 1869년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되자 화물 수송과 유통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협동조합 시대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된 시점에서 설립 붐이 일고 있다. 지역에 선 다문화가정과 청소년, 시장에서 팔죽을 파는 노인 등 소외계층이 협동조합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시대, 협동조합이 매점매점 주식회사의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기고



임영목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케이블카, 조망타워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환경파괴를 우려한 데 대해 차체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상징조형물 설치를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 사례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섬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민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무등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상징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광주가 유네스코 기록문화에 등재된 시점에서 518과 무등산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무등산 전망타워 논란에 부처

“지역 랜드마크 고민해야 한다”

기회에 문화와 예술적으로 형상화되는 조형물을 찾을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전남도가 518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의미의 조형물을 찾는 과정에서 거리단위인 m가 붙어 518m 초대형 전망타워라고 잘못 전달되고 확대되어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 안타깝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뉴욕의 자유의상상이나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우리도 평화·인권·민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상징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무등산과 접목시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대형 건축물만이 랜드마크로 좋다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은 80cm로 작지만 동화 속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거대한 대형건축물 못지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규모가 작더라도 아름다운 조형물과 호남 선비정신을 무등산에 대한 높은 여망을 가지고 이를

몽크의 '절구'라는 그림처럼 '무등산의 찬희'로 승화시키는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상징 조형물 건립에 따른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점이 많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스위스 융프라우(3454m)의 경우 1912년에 완성된 설국열차를 통해 찾는 관광객이 연간 65만명(한국인 9만명)이며 100여 년 동안 환경파괴 우려 없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후난성 장자제에 있는 해발 1517m의 천문산에 세계에서 가장 긴 7.2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호남의 명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품격이 높아진 이때에 공원면적의 36%가 전라남도인 관계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전남과 광주가 분리돼 있지만 다시 뭉쳐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등산에 대한 높은 여망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 다수가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역 품격을 높이고, 높이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다들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 자연을 훼손하는 일과는 구분되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상징물 설치 논란을 계기로 후손에 자랑스럽게 남겨질 자연과 미래의 공존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의견을 무시하고 미려를 위해 무엇을 다들 짓는지, 무엇이 바람이 될 것인지, 성숙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선진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민해야 할 때다.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

소멸해 나가기 위해서는 참고 인쇄하는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비례(非禮)를 자신의 허물로 보아 타인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정진(精進)으로 승화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영원한 것은 없지만, 차안과 피안의 구별은 있어 늘 무너지지 않는 사원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더욱 간절히 원한다.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됨을 알아 오늘 이 자리에서 언연에 따라 묵묵히 견디어 언젠가는 진리로 활짝 열리어, 온 세상이 하나의 꽃으로 잠입하여 더 이상의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며 임진의 겨울을 넘어 계절의 봄으로 가려한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준엄함은 있어 스스로 허물을 알고 뉘우치고, 사탄은 스스로 물러가고, 허우리가 벗어나 실다운의 자기자리로 가기 위해 경책하러 한다. (백양사 포교국장)

중고칼럼



도권

임진년에는 모든 것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연말, 거리거리에는 붉은 깃발과 황색 깃발이 펄럭이고 18대 대통령선거는 수많은 탄식 그리고 환호로 끝을 장식했다. 삼국유사의 산실 '경복 궁위군 인각사' 주지 소임을 끝내고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처음 출가한 광주의 무량사는 어디쯤인가 궁금해 하면서 백양사 포교국장의 소임을 맡아 영남에서 호남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은 어

떤 인연의 까닭인가?

이제 계사년의 아침은 밝았고 삼동(三冬)의 구순안거(九旬安居)는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세월은 우주 속에서 흐르고, 영겁의 우주 속에서 100년 혹은 1000년은 순간이거나 찰나일지도 모른다. 설혹 순간 또는 찰나 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율곡계 수행하고 수행한 바를 인간 세에 바르게, 또 각도각 절여가게 하고자 했던 마음들은 영겁 속에서 유희의 흐름을 짓는다.

눈만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떠오르다 보니 어찌다 나무무명예 머리가 걸처듯,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했다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올바른 사람 노릇하기가 어찌 그리 쉬울까? 살다 보면 탐욕·성냄·어리석음에 빠져

해매고, 어찌어찌하다 보면 오욕칠정이란 놈에 혹해 또 허우적거리다 문득 어느 저녁 나절 들려오는 쇠성에 정신이 번쩍들 때도 있다.

수십 년 머리를 깎고 살아오면서 때론 절집의 비승가적 모습에 실망하여 신랄하게 타인을 비방하고 묵정 돌이 정외인양 외쳐 보기도 했지만 영겁의 세월에 그 무엇이 슬모가 있는가? 선원에서 코끝에 흐르는 자기 숨결을 느껴, 자기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침묵 속에서 자신을 몰아 갔던 것들이 싸늘한 겨울 공기 속에서 울울히 되살아나곤 한다.

너와 내가 공연(共業)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사바세계에서,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 사바세계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닦아

빈곤층 의료급여 국고보조 예산마저 삭감해서야

해를 넘겨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모처럼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복지예산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총 3%에 주어지는 의료급여 예산이 2800억원이나 삭감되는 우를 범했다. 아무리 복지도 좋지만 가장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 156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국고보조예산마저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나 율법한가.

이미 의료급여 예산은 작년에도 80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삭감되어 버렸더니 이제 의료급여 수급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의상 환자'라 불리

며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아예 약도 타오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판이다. 국민자는 대부분이 약으로 연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최소한의 진료나 약도 타오지 못하고 푸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것인가.

그런데 국회는 상위 30% 계층에게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핑계로 최극빈층 3%를 위한 의료급여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반문하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회며 예산심의인지 서글플 뿐이다. 아무리 복지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가

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들의 최소한의 건강 보험 국고보조까지 삭감하는 국회가 어찌 민의를 대변하고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지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리고도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무려 3700억원이나 늘리며 대선 때 세비를 깎고 연금도 받지 않았으며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반복한다 말인가.

또한 예산안이 통과되자 예결위 여야 소속의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국민의 혈세로 외유를 떠나 버리는 뺑뺑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정말 국회의원들은 석고조각하며 반성을 하기 바란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